인문연구 제8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7, No. 5, pp.117~142
http://dx.doi.org/10.21211/JHUM.87.5

『대사들』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양상들과 스트레더의 최종 선택*

이원주**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자본주의의 양상들
3. 스트레더의 최종 선택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헨리 제임스(Henry James)는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시기에 활동한 소설가이다. 그는 『대사들』(*The Ambassadors*)에서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을 미국인들의 사고와 가치관에 투영시킨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물질 중심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방종과 소비를 숭배

* 본 논문은 현대영미어문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을 확장하여 연구한 것임.
**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하고 교양과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무관심한 미국인들의 모습에 비판을 가한다. 더 나아가 그는 유럽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사고를 고수하는 미국인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다. 예컨대 유럽에 온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피상적 인간관계의 단면을 드러낸다. 제임스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유럽 문화와의 통합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는 스트레더의 최종 선택, 즉 청빈한 삶을 선택한 결정을 통해 지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삶의 가치를 보다 넓게 인지하도록 촉구한다.

주제어: 제임스, 자본주의, 물질 중심적 가치, 지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 청빈한 삶

1. 들어가는 말

제임스는 국제 소설과 국제 주제를 중심으로 신구 양대륙의 가치와 문화를 비교한 국제 작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부르주아지 백인 남성으로서 친유럽주의자이며 보수주의자, 심미주의자 혹은 도덕주의자라고 인식된다. 『미국인』(*The American*), 『데이지 밀러』(*Daisy Miller*),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 그리고 『대사들』이 국제 주제를 다룬 그의 주요 소설들이다. 이 가운데에서 『대사들』은 제임스가 "최고"(James, *Art* 309)라고 자평한 대표적인 후기 소설이다. 그런데 대부분들의 『대사들』의 국내 연구들은 주인공 램버트 스트레더(Lambert Strether)의 포기나 국제주의적 요소, 실용주의 혹은 도덕적 비전, 시점의 영역과

변화 연구와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1)]

그러나 제임스는 신구 양대륙의 문화와 가치체계의 차이만을 취급한 국제 작가이거나 도덕이라는 주제를 다룬 작가라고만 한정지을 수 없는 바이다. 사라 블레어(Sara Blair)는 제임스의 작품을 "국적이라는 정체성의 주제와 더불어 가족, 성, 국가, 문화와 인종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의 한계를 시험"(58)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존 로우(John Carlos Rowe)는 제임스를 "성, 계급, 인종과 같은 주제에 대한 코즈모폴리터니즘적 견해와 시대적 문제의식"(219)을 지닌 작가라고 평한다.

로우의 지적처럼, 제임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산업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발흥하던 19세기 중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활약하며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개인적 소견을 피력했다. 예컨대, 1907년에 출간된 『미국 기행』(*The American Scene*)에서 제임스는 미국 자본주의의 물질 중심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아울러 자유방임의 시장 경제에서 "자유란 속임수"(345-46)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당시 생산시대에서 소비시대로 나아가던 미국 사회는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과도기의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클레어 가르시아(Claire O. Garcia)는 『대사들』을 "유럽의 문명화된 사회의 가치와 미국의 물질적 그리고 자본주의적 문화의 가치를 단순히 대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의식을 형성하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역사적 힘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154) 작품이라고 진술한다.

비록 『대사들』은 『미국 기행』보다 4년 앞서 발표되었지만, 미국

---

1) 1990년대 이후의 국내 연구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홍명혜의 「대사들의 스트레더의 포기」, 최경도의 「헨리 제임스의 대사들: 삶의 도덕적 비전」, 안동현의 「대사들: 국제주제 소설로서의 성패」 그리고 문영희의 「헨리 제임스의 특사들: 실용주의적 인식의 전환」과 여경우의 「헨리 제임스의 실용주의 연구」, 윤진구의 「*The Ambassadors*에서 시점의 영역과 변화 연구」 등이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제임스의 견해가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자본주의 체제하의 미국인들의 가치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간과된 주제인 자본주의가 파생시킨 양상들에 주목하여 미국인들의 물질 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이 소설 속 인물들에게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스트레더의 최종 선택이 어떤 의미이며 이 최종 선택을 통하여 제임스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시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본주의의 양상들

소설의 줄거리는 뉴잉글랜드 울렛(Wollett) 출신의 스트레더가 약혼녀인 뉴섬 부인(Mrs. Newsome)의 심부름을 대행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대사로서 선결할 그의 임무는 장기간 파리에 체류하며 귀국을 미루고 있는 약혼녀의 아들인 채드(Chad Newsome)를 설득하여 귀국시키는 일이다. 스트레더를 파리로 파견한 뉴섬 부인은 울렛에서 고인이 된 남편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로 등장한다. 이른바 그녀는 미국 자본주의의 부의 위력을 구현하는 존재이다. 마우드 엘먼(Maud Ellmann)은 가상의 도시인 "울렛을 산업이 발달한 자본주의와 동일시되는 곳"(508)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스트레더와 뉴섬 부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이성이다. 그들은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한 사이지만, 여느 남녀들처럼 애정에 기반을 둔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는 뉴섬 부인에게 이성적 감정이나 편안함보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지닌다. 심지어 유럽과 울렛이라는 상당한 지리적 거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트레더는 그녀가 유럽에 함께 있다고 생

각한다. "그녀의 말소리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2]라는 강박감은 그에게 미치는 그녀의 절대적 영향력을 암시한다. 사실상, 뉴섬 부인은 소설에서 이름만 거론될 뿐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이지만 스트레더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지대한 영향과 권력을 행사한다.

스트레더와 뉴섬 부인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은 그의 임무, 즉 "심부름"(errand)(18)에서 유추할 수 있다. 페리 밀러(Perry Miller)의 정의에 따르면, 심부름이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원래 심부름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봉사를 위해 가는 짧은 여정"(3)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함축적 의미에서 심부름은 사명 즉, "행위자가 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는 실질적인 업무, 목적 그 자체 그리고 염두에 둔 의식적 의도"(3)를 뜻한다. 이처럼 스트레더의 심부름은 뉴섬 부인이 상급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스트레더와 뉴섬 부인의 관계가 다소 강압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녀는 스트레더에게 미래 아내로서 보다 임무와 지시를 내리는 직업상의 상관으로서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녀의 지시에 거절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는 초로의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다가 잡지사의 편집자라는 직책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재정 후원자인 뉴섬 부인의 신임을 얻어서 획득한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그에게 그녀는 심부름을 빌미로 안온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더 나아가 스트레더와 뉴섬 부인의 관계는 결혼을 매개물로 하여 상호간의 비즈니스 계약에 근거한 관계로 볼 수 있다. 마치 그

---

2) Henry James, *The Ambassadors*, ed. S. P. Rosenbaum (New York: Norton, 1964), p. 60 이하 텍스트의 인용은 괄호 속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 자본주의 체제 하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뉴섬 부인으로부터 그가 부여받은 임무 안에 부수적인 조건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의 관계가 여느 남녀처럼 사랑에 기초를 둔 관계라면 이러한 조건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채드를 귀국시키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뉴섬 부인과의 결혼도 무산되고 남은 인생의 최후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그는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수고의 결과물을 제시하여 자신의 유용성과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가르시아는 이러한 성격을 띤 스트레더의 심부름을 "출장(business trip)"(157)이라고 지칭한다. 이와 같이 스트레더는 인격적 존재가 아닌 시장의 상품처럼 결과물, 즉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상황에 있다.

향후 스트레더가 뉴섬 부인의 새 남편이 되더라도 뉴섬 가의 가업을 이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업적으로도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더욱이 뉴섬 부인은 이미 가업을 이을 후계자로서 채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신에 그는 가업을 이을 채드를 귀국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본의 증식에 기여할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일조하고자 한다. 가르시아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울렛을 "투자와 총수익에 집착하는 곳"(159)으로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그녀는 "남성의 정체성을 돈을 버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울렛과 같은 사회에서 스트레더는 실패자"(161)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스트레더 스스로도 타인의 지배하에 놓인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한탄하며 패배자의 인생으로 평가한다(40). 저조한 잡지의 발행부수 또한 그의 실패감을 더욱 부추긴다(51). 게다가 평론지는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남성"(299)인 그의 관심사인 문학이나 예술 분야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는 초로에 이르기까지 실패를 반복한 자신을 "갖출 것은 골고루 다 갖춘 완전한 실패자"

(40)라고 비하한다. 기껏해야 그가 "신원을 밝히는 수단"(51)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녹색 평론지 표지 위의 편집자라는 직함뿐이다. 이 또한 그의 무능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행위가 아니라 소유물에 의해 정의된다.

대사로서 유럽에 오기 전까지 스트레더는 뉴섬 부인을 "기품 있는 여자"(179)이고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68)는 미덕을 지닌 여성으로 생각하며 전적으로 그녀를 신임한다. 그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반면에 뉴섬 부인을 "죄가 없다"(52)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그녀를 채드와 같이 "타락한 놈, 고집 센 놈"(45)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애로운 어머니로 여긴다. 그러나 스트레더가 채드와 비오네 부인(Madame Marie de Vionnet)의 관계를 옹호하며 대사로서의 임무와 상충되는 입장을 취하자, 그녀의 태도는 돌변하여 편지 두절과 침묵으로 대응한다. 이 일을 계기로, 스트레더는 뉴섬 부인을 "차가운 덩어리"(296), "냉철한 생각으로 뭉쳐진 사람"(296) 그리고 "자기 나름의 완전성으로 다져진 여자"(298)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녀의 처신은 스트레더와 자신의 관계가 자본주의 체제 하의 교환 가치적인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결국 그와 뉴섬 부인의 관계는 화해나 재결합을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사이가 된다.

되돌아보면 스트레더는 울렛에서 뉴섬 부인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며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는 잡지의 후원자인 그녀의 지배와 통제 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해 온 셈이다. 편집자라는 그의 직책은 자기 개발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 결과, 일 자체는 기쁨이나 만족감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하며 고통을 준다.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는 패배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와 미덕 그리고 능력을 근거로 상위층에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을 능력주의로 정당화하는 현상은 최상위층뿐만 아니라 중하위층에서도 일어난다"(416-17).

익히 알다시피,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인구 증가와 대도시화 현상을 가져왔다. 경제학자 슈마허(E. F. Schumacher)는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 즉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에 대해 진술한다. 이 현상은 "취급하기 어려운 낙오자 문제, 즉 뿌리가 뽑혀 책무가 없어져 사회의 어디서도 적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급증시키며,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 소외,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사회 붕괴"(52)와 같은 문제들도 일으킨다. 슈마허의 주장처럼, 스트레더는 물질 중심적 가치와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경쟁에서 낙오되어 상대적 열등감과 비탄에 빠져 있다. 그는 물질적 성공을 거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상대적인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낀다. 그는 자본주의적 가치가 파생시킨 결과물, 즉 상대적 좌절감, 박탈감, 스트레스 그리고 삶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을 구현하고 있다.

반면에 스트레더는 자신과 달리, 물질적 부를 이룬 친구인 웨이마쉬(Mr. Waymarsh)를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하며 선망한다(30). 파이퍼(Siobhan Peiffer)는 울렛에서 "성공이란 경제적 독립"(97)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스트레더는 성공의 기준을 물질 중심적 관점으로 사유하며 남성의 가치를 경제적 수입과 동일시하는 울렛의 가치를 그대로 따른다. 그런데 웨이마쉬의 삶은 물질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스트레더가 부러워할 정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는 과로에서 비롯된 신경쇠약증으로 인해 유럽에서 3개월 동안 요양을 하며(30), 건강을 희생한 대가로 물질적 부를 누리고 있다. 그는 아내와 오랜 기간 별거중인 상태에 있다(30).

신경과 의사 조지 밀러 비어드(George Miller Beard)는 정신병이 만연한 19세기 당시 미국의 세태를 상술한다. 그는 "근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미국을 신경과민증의 나라에 비유하며 치열한 생존을 위한 경쟁을 그 원인"(Lears 50)으로 지목한다. 모리스 버먼(Morris Berman)은 "출세주의, 즉 신분 상승이 당시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성공을 위한 경쟁은 주기적 신경쇠약증과 교대로 발생했다"(17)며 부연하여 설명한다. 산업 문명이 발전하여 도시화와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성공과 부에 대한 압박감과 긴장감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감을 비롯한 이러한 증세가 촉진된 것이다. 추측컨대, 그들은 현대인들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빨리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3)]

그동안 스트레더와 웨이마쉬는 미국에서 분주한 삶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만날 시간적 여유조차 낼 수 없었던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다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 중 하나"(60)가 되어 유럽에서 마침내 상봉한다. "매사에 너무 열중"(46)하는 뉴섬 부인 또한 신경과민과 흥분성으로 양호하지 못한 건강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스트레더를 비롯한 다른 대사 일행을 유럽으로 파견하게 된 것이다. 스트레더와 웨이마쉬 그리고 뉴섬 부인은 모두 물질적 성공에 매진하는 삶을 추구해 왔다. 그들은 산업

3)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경병리학자 컬린(William Cullen)은 신경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그는 『정신의학연습』(*First Line of the Practice of Psychiatric,* 1777)에서 신경계통의 쇠약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정서적 장애를 신경증이라고 진단 분류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사용하는 신경증 혹은 정신신경증이라는 용어의 효시가 되었다. 세계적 명성을 지닌 미국정신의학회가 출판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요강』(*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1968) 2판에서도 신경증이라는 진단용어를 사용한다. 이 안에는 '불안, 히스테리, 히스테리 전환형, 히스테리 해리형, 공포증, 강박증, 우울증, 신경쇠약, 이인증, 건강염려증' 등과 같은 10개 하위 항목이 있다. (이현수 13-15)

과 기계 그리고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 성공과 부를 위해 일에 치중된 삶을 살아 온 셈이다. 타인과 공동체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야 할 인간이 경쟁으로 인해 일에 치우쳐 여유 없는 삶을 산다. 인간은 생존과 경쟁으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여 자신의 본질, 즉 참모습을 상실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유럽에 직접 오지 못한 뉴섬 부인은 광고 기술로 제조 공장을 독점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 "훌륭한 수완가"(50)로 알려진 그녀는 사업적 소질과 능력을 가지고 광고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채드를 통해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채드는 파리에 거주하면서도 최신 광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런던에 다녀올 정도로 열성을 보인다. 그는 과학 기술을 동원하는 광고를 하나의 예술이라고 칭하며, 장차 광고가 보여줄 잠재력을 예측한다. 이른바 "대사업가가 될 소질"(341)을 지닌 채드는 제조 공장을 독점 기업으로 도약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광고 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한다. 광고에 열의와 관심을 보이는 채드는 "악의 근원"(47)인 "돈이 모든 기초"(50)가 되는 물질주의에 기초한 사람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그의 관심은 자본주의의 물질 중심적 가치에 대한 열망을 가시화한다.

미국 사회에서 독점 기업은 19세기 중반에 등장하는데, 기업가들의 독점화는 투기와 같이 불공정한 경제 활동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대부분의 자본가들의 심리를 지적한다. 즉, 그들은 "경쟁을 피하여 최대한 많은 독점 권력을 확보하고 독점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열망"(134)을 품고 있다. 뉴섬 부인과 채드가 품은 계획 또한 자본가의 심리를 그대로 대변한다. 자본주의가 산업 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광고는 독점 기업을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여기에서 하비는 광고를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치열한

경쟁적 상황에서 벗어나 독점 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산업"(140-41)이라고 명명한다. 또한 광고는 "특정 상품의 이미지와 평판을 통하여 독점 지대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산업"(Harvey 140-41)이 된다. 일종의 홍보 산업인 광고는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포터(David Potter)는 광고를 "기존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의 연결 장치가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본질이 변형"(171)되었다고 반박한다.

이제 광고는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를 자극하여 소비를 조장한다. 그 결과, 광고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과잉 소비와 대량 소비를 하게 된다. 결국 광고는 인간을 소비의 노예로 만들며 소비지상주의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특히 유럽에서 충동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웨이마쉬의 모습은 소비지상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예를 들면, 스트레더와 마리아(Maria Gostrey)가 동행한 산책길에서 그는 갑자기 "보석상"(39)으로 돌진하여 물건을 구매한다. 그는 유럽 여행을 온 여느 미국 관광객들처럼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위력을 과시한다.[4] 그에게 유럽은 문화, 전통과 예술의 보고가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곳으로 한정된다. 테너(Tony Tanner)는 웨이마쉬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유럽을 구매의 장소로 축소하여 생각"(115)을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웨이마쉬는 유럽인과 관계를 형성하여 관계의 폭

4) 소비는 소유의 한 형태이며 풍요한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소유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중적 특질을 가진 소비라는 행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염려를 제거하는 이유에서 걱정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이전의 소비가 곧 그 만족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나는 존재한다 =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및 내가 소비하는 것'이라는 공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할 수 있다. (Fromm 5)

을 넓혀가는 데에 무관심한 태도를 고수한다. 심지어 그는 유럽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며 스스로를 차단하고 고립시킨다. 그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행위를 반복할 뿐이다. 그의 행동은 상업화가 진행되던 당시 미국 사회의 과시적 소비와 소비문화의 실례가 된다. 유럽 여성인 바라스 양(Miss Barrace)은 그를 "가련한 사람"(158)으로 취급한다.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웨이미쉬와 같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습관에 관심을 덜 지니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인간관계의 가치나 자연이 가져다주는 기쁨 혹은 훌륭한 공동체가 주는 즐거움을 강조"(204)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 전반에 걸쳐서 볼 때 코틀러가 제시한 방법은 웨이마쉬에게 적용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한편 뉴섬 가의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는 "작고 사소하고 다소 우스꽝스러운 흔해빠진 가정용품"(48)은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대신에 그 가업이 불법과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하여 얻어진 부라는 사실이 암시된다. 그리고 "도덕적 수완가"(52)인 뉴섬 부인은 남편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한 부를 자선사업을 통해 "자기가 범해 온 죄에 대한 일종의 속죄"(50)를 하고 있다. 하비는 "자선활동을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완화시키기 위해 베푸는 역할인 동시에, 부자들이 밤잠을 잘 자게 하는 양심 세탁의 한 형태"(211)라고 정의한다. 멀 커티(Merle Curti)는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계급과 직업과 관련된 심사숙고, 즉 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신용과 판매 증가의 결과를 낳는 경제적 이윤"(623)과 관련된 처사라고 기술한다. 분명한 바는 기업의 자선활동이 이윤과 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다.

주목할 점은, 뉴섬 부인의 자선활동이 그 자체로 고무적이지만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캘빈 홀(Calvin S. Hall)은 "합리화란 초자아(superego)가 난색을

보이는 일을 하게 된 경우에 이 책임을 외부세계나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정당화하는 구실을 모색"(90)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석한다. 또한 "합리화란 방어기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생각이나 동기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대체"(Hall 90)하려는 데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부자 스스로는 선한 동기에서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기 과시나 죄책감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뉴섬 부인은 불법을 자행하여 얻은 부를 자선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녀의 처사는 일종의 자기합리화가 될 소지를 지닌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자로 여겨지는 스트레더와 달리, 뉴섬 가 사람들과 웨이마쉬는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들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명예를 불문율로 여기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지닌 스트레더와 다르게 각 상황에 대응한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과 이해관계 그리고 편익에 따라 언제든지 타인을 이용하며 배반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엄격한 울렛의 가치와 기준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에서 이중적 실체를 드러낸다. 즉, 개인과 집단으로서 그들은 사익을 추구하며 해이해진 도덕적 기강과 무너진 가치관을 재현한다.

우선, 채드는 파리에서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며 귀국을 지연시킨다. 그는 프랑스 귀족 여성인 비오네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그녀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그는 백작 부인이라는 그녀의 신분과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인해 유럽인처럼 세련된 예법과 교양을 갖추고 프랑스 사교계 인사들과 교제를 즐긴다. 이른바 시골 청년에서 "파리 토박이"(219)와 같은 채드의 기적과 같은 변모는 비오네 부인의 "관심의 결과이며 천재적 소양의 산물"(231)이다. 맥스웰 가이즈마(Maxwell Geismar)는 비오네 부인을 "유럽 문화의 최상위 산물"(102)로 묘사한다. 필립 와인스타인

(Philip M. Weinstein)은 비오네 부인을 "역사적 미와 프랑스 문명의 연속성을 상징"(134)하는 존재로 평가한다. 그러나 채드는 비오네 부인이 제공하는 유럽 문화의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수혜자이면서도 유럽 문화가 제공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에게 그녀는 젊은 시절 일시적인 욕망의 대상일 뿐이다. 그의 내심은 스트레더와 나누는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귀국을 미루는 이유가 여자 때문이냐는 그의 질문에 채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전 한 번도 헤어나지 못하게 빠져 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때고 무언가 더 좋은 대상이 나타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끊어 버렸으니깐요. (100)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채드는 비오네 부인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그는 유용성과 이용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실리주의자이며 이기주의자임을 보여준다. 그는 이미 비오네 부인에게 권태감을 느끼며 적절하게 헤어질 시기를 엿보고 있는 중이다. 샤마(Jagdish N. Sharma)는 채드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비오네 부인이 싫증나자 다른 대상을 찾는 호색가"(31)라며 비평을 가한다. 게다가 런던에 다른 여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는 소설 후반부(339-40)에서도 채드의 인성이 재차 드러난다. 그는 타인을 이용하거나 희생시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 심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채드의 도덕적 불감증은 절대적 기준이 부재하여 가치관이 혼란한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 모습을 시사한다.

종국에 채드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는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권태감을 느끼면 결별을 쉽게 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는 어려운 문제를 모두 여성에게 일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면을 보인다. 그는 귀국을 종용하는 누이 사라 포콕(Sara Pocock)에게 "가라고만 하면 즉시 가겠다"(275)라고 말하며 스트레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그런데 스트레더는 "백마정"(305)에서 채드의 실체를 뒤늦게 파악하고 난 후에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행위를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하며 비오네 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권고한다(339). 그는 간음 그 자체보다 배은망덕한 처신을 더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비오네 부인과 헤어지고 귀국하려는 채드의 결정을 "짐승"(336)이며 "파렴치한 행위"(343)라고 비난한다. 여기에서 채드는 제임스가 묘사한 미국인의 "열정 없는 순례자'의 모습, 즉 유럽을 편의에 따라 이용하고 버리며 장난감처럼 여기는 행동"(James, *Art* 189)을 드러낸다.

프랑스 귀족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감각과 거의 유사한 욕구를 공유하고 있지만,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상이성에 대해 거론한다. 즉, "인간은 정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본능으로만 물질적 혜택을 모색하는 동물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적 목표에 자족한다면 물건을 생산하는 기술마저 상실하여 동물과 같이, 안목이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누리게 된다"(157). 그런데 채드는 냉철하고 사리사욕이 앞서는 자본가이며 인간관계보다 자신의 목표를 우선시한다. 토크빌이 경계했듯이, 만약 그가 정신을 고양하는 것 보다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인간 본연의 심성을 상실하고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이다.

다음으로, 채드와 같이 진면목을 드러내는 웨이마쉬는 도덕군자처럼 굴다가 "뉴섬 부인의 대변자"(193)인 사라를 만나면서 급변한다. 그는 사라와 파리에서 서커스를 관람하고 상점가와 식당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시적 로맨스를 즐긴다. 마리아는 이러한 그

를 “보기 흉한 바람둥이”(243)라고 비판한다. 테너는 유럽의 예술과 문화 그리고 건축물을 감상하는 대신에 서커스를 즐기는 웨이마쉬의 행동을 “무교양성과 속물근성”(115)을 드러내는 처사로 설명한다. 유럽을 저속한 구경거리와 오락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의 처신은 방종이며 자기기만적 태도이다. “얽매인 정신의 소유자”(199)인 웨이마쉬는 마리아와 스트레더의 관계를 불순한 관계로 오인하여 감시를 하라는 밀고의 편지를 보낸 장본인이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친구인 스트레더의 진면모를 모르는 행실이다. 그는 친구를 배신한 이 일을 계기로, 뉴섬 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개인적 이익을 얻는다. 채드와 같이, 그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처신술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내심을 감추는 이중성과 세속적인 면을 지닌 뉴섬 모녀는 짐 포콕(Jim Pocock)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과대평가한다. 짐은 채드를 귀국시킬 대사로서 유럽에 왔지만 맡은 임무 보다 유럽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을 우선시하며 모든 일을 여자들에게 일임하고 방관자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심지어 그는 사라와 웨이마쉬의 일시적인 로맨스, 즉 일탈을 막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드러낸다. 스트레더는 이러한 짐을 “냉소적인 사람”(232)이며 “형편없는 사람”(245)으로 평한다. 여기에서 슈마허는 뉴섬 모녀가 짐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즉, “탐욕 또는 질투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다시 말해 상황을 엄정하고 총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상실하여 그 사람의 성공을 실패로 만든다”(18)는 것이다. 뉴섬 부인은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의 이유와 가업을 독점 기업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에 전념하여 짐의 실상을 간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사라는 유럽에서 만난 웨이마쉬와 로맨스를 즐기고 바라스 양으로부터 그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나타내는 저급한 수준의 여성이다. 비평가 리언 이델(Leon Edel)

은 사라를 "교양과 감수성 그리고 수완이 없는 여성"(*Ambassadors* 215)으로 묘사한다. 요컨대 포콕 부부는 채드를 귀국시키는 주된 임무보다 재미와 즐거움, 즉 "환락의 지식"(255)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어린이들"(204)과 같은 부류인 것이다.

지금껏 스트레더가 유럽에서 목도한 뉴섬 가 사람들과 웨이마쉬는 이중적이며 울렛의 삶을 제외한 다른 삶의 방식에 폐쇄적 태도를 고수하고 그 진가를 식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에도 무관심과 무지함을 표출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들은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를 옹호하는 스트레더의 태도를 배신으로 간주하며 용인하지 않는다. 그들과 대조적으로, 비오네 부인은 백작 부인으로서의 체면 보다 "젊은 사나이에게 버림받고 울고 있는 하녀"(323)와 같이 실연을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스트레더는 뉴섬 가 사람들과 웨이마쉬가 맺는 관계의 본질과 실체를 목격하고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모두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재한 사람들이다.

3. 스트레더의 최종 선택

스트레더는 파리에서 6개월 동안 임무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선택들을 모두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는 심부름을 완수하지 않고 도중에 채드를 남겨두고 혼자라도 귀국을 하라고 명령한 뉴섬 부인의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유럽에 더 체류하는 결정을 내리며 끝까지 임무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그는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를 "도덕적 순결한 애정"(112)이라는 존 리틀 빌햄(John Little Bilham)의 "기술적인 거짓말"(330)과 마리아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묵인으로 오인을 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백마정에서 진실을 목도할 때까지 자신을 기만해 온 채드와 비오네 부인을 원망하며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뉴섬 부인에게 돌아가서 화해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트레더는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에도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를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뉴섬 부인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삶의 기회마저 자진하여 단념한다. 심지어 그는 뉴섬 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며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채드의 귀국을 저지하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 그가 판단컨대, 채드의 변화가 설령 겉모습만 바뀐 것이라 할지라도 물질주의적 가치가 만연한 미국 사회에서 결코 형성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더 나아가 스트레더는 채드와 비오네 부인의 관계를 지지한 대가로 그들로부터 파리에서 안락한 삶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 호의마저 거절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생을 보살펴 주겠다는 마리아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녀와의 관계가 우정일 뿐임을 증명한다. 그는 양심에 따라 처신하며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결국 그는 미래의 삶에 대한 약속이나 혜택도 없으며 반기는 사람도 없는 "삭막한 고장"(317)과 같은 미국으로 귀국하는 선택을 한다.

그동안 스트레더는 채드를 귀국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뉴섬가 사람들과 웨이마쉬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상심하게 되고 자신이 고수해 온 종래의 가치관에 회의감을 품으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마음먹은 대로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132). 그는 "아름다운 지성과 몸에 밴 파리인의 습성"(84)을 지닌 미국인 예술가 빌햄에게 "마음먹은 대로 살게"(Live all you can)(132)라고 조언한다.

> [. . .] 마음먹은 대로 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특히 무엇을 하든 그건 별로 문제될 게 없

> 네. 자신의 인생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무엇을 가졌었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사람에겐 자유롭다는 환상이 있어. 그러니 나처럼 그런 환상의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네. 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난 실패한 게 확실하니까 말야. 마음먹은 대로 살게! (132)

위 인용문은 글로리아니 정원에서 스트레더가 빌햄에게 자신처럼 삶을 허비하지 말고 제대로 살라고 충고를 하는 부분이다. 매티센(F. O. Matthiessen)은 스트레더의 조언을 "작품 전반의 지배적 주제에 대한 본질적 표현"(428)으로 규정한다. 이델은 '마음먹은 대로 살게'란 "통찰력과 비전의 명료성을 가지고 환경과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며 삶을 영위하는 문제"(*Ambassadors* 210)라고 정의한다. 스트레더는 초로에 이르기 까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에 과거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이제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인생의 선배이자 연장자로서 자신을 닮은 빌햄에게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처럼 파리에서 스트레더가 겪은 일련의 경험은 울렛의 가치관이 지니는 한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그는 울렛에서 느끼지 못한 자유를 유럽에서 만끽하고 인생의 의미를 재고하며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된다. 그는 스스로 "전과는 다른 사람"(343)이 되었다고 자평한다. 크리스토프 웨젤린(Christof Wegelin)은 『대사들』을 "제임스의 정신적 자서전인 동시에 스트레더를 미국인 코즈모폴리턴(cosmopolitan)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444)라고 해석한다. 종국에 스트레더는 제임스와 같이 코즈모폴리턴이 되는 선택을 한다. 그는 열린 결말에서 미국으로 귀국함으로써 미국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트레더는 미국이나 유럽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테너는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은 스트레더의 결정을 "특정 가치 체계에 자신을 제한할 수 없는 선택"(115)으로

간주한다. 제임스는 스트레더의 최종 결정을 통하여 융통성 있는 상대주의적 가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즉, 스트레더의 선택은 물질 중심적 가치를 중심으로 매사를 평가하여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사고를 견지하는 울렛의 편협하며 이분법적 가치에 반기를 들고, 심미적이지만 부도덕한 파리의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물론 그는 맹목적으로 유럽 문화와 전통을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태도 또한 지양한다. 그는 미국과 유럽 문화의 가치의 장단점과 차이 그리고 그 한계성을 숙지하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다시 말해, 그는 미국적 가치에 유럽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통합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더의 최종 선택에 대하여 마리아는 "당신은 왜 그렇게 지독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죠?"(345)라고 질문한다. 오스틴 워렌(Austen Warren)은 '지독하게 올바르다'는 것이란 "선함과 자기희생을 내포"(161)한 의미로 해석한다. 요컨대 '올바르다'는 의미란 스트레더가 맡은 임무에서 자신을 위해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뉴섬 가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단절되었지만, 임무를 다함으로써 자신의 결곡한 성품과 책임감 그리고 도덕성을 증명하며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한다. 다른 미국인들과 다르게 "양심의 부담을 예리하게 느끼는 유형"(92)인 스트레더는 시종일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도덕적인 선택을 내린다. 오스카 카길(Oscar Cargill)은 이러한 스트레더를 "뉴잉글랜드 양심의 화신이며 순진한 도덕적 이상주의자"(313)라고 비유하여 설명한다.

스트레더는 모든 제안들을 거부함으로써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킴으로써 개인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유럽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과 지성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삶을 보게 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공과 부'

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경쟁에 재진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후, 새로운 삶에 재도전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요컨대 그의 선택은 생존과 진보라는 미명 하에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 속으로 재차 휘말려 들어가는 삶에 거스르는 도전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라이얼 파워즈(Lyall Powers)는 "스트레더가 얻은 비전이 보상이며, 비전을 소유한다는 것은 삶을 소유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중요한 혜택을 얻은 것이므로 필요한 것이 없다"(93-94)고 피력한다.

달리 보면 스트레더의 최종 결정은 타인의 재산과 도움에 의존하는 삶이 더 이상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데에서 비롯된 처신이다. 만일 그가 마리아의 청혼을 수락한다면, 그는 뉴섬 부인과의 결혼이 무산되어 이제 또 다른 도움과 의지의 대상을 강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의 삶은 대상을 바꾸어 또 다른 여성에게 의존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다. 양심상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 마리아의 사랑을 이용할 수 없다. 마침내 그는 유럽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발적으로 청빈한 삶을 선택한다. 이제 그는 물질적 가치에 함몰되는 삶이 아니라 지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인식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유럽에 온 다른 미국인들과 달리 유일하게 의식의 자유를 지니게 된다. 이델은 스트레더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유, 즉 상상력 혹은 환상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Life* 412)고 단언한다.

궁극적으로 스트레더가 자진하여 선택한 청빈한 삶은 자본주의의 물질 중심적 가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삶을 가치를 인식하여 삶을 제대로 영위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코틀러는 자본주의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물질 없이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 세 가지를 피력한다. "먼저 예술과 문화 및 종교에 심취한다. 다음으로 기부와 공유, 그리고 타인을 돕고 협력하며 자원봉사를 하는 친사회적 행위를 한다. 마지막으로 비물질적 방법, 즉 검소한 삶을 선택한다. 이 방법은 소비를 줄여 돈을 버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절약된 시간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420-22)인 것이다.

이른바 예술가 유형인 스트레더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의미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술에 심취하고 소비지향적인 삶이 아닌 검소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제 그는 자신을 패배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지적 그리고 정신적 풍요를 삶의 진정한 가치로 우선시하는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종국에 그는 유럽에서 습득한 의식의 자유가 부여하는 환상의 삶을 직접 시도하고자 미국으로 귀국한다.

4. 나가는 말

제임스는『대사들』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거론되는 불평등이나 빈부격차, 실업, 공황, 자연과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을 제공하는 자본주의의 다른 단면, 즉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그는 당시 시대상과 더불어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물질 중심적 가치가 빚어낸 다양한 양상들을 미국인들의 사고와 가치관에 투영시켜 보여준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미국인들은 물질 중심적 가치에 함몰되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스트레더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부도덕하고 위선적이며 개

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피상적 인간관계의 단면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제임스가 비판한 자본주의 체제하의 미국인의 삶은 1831년에 미국 전역을 여행한 토크빌이 관찰한 시각과 일치한다. 즉, 미국인의 삶은 "막연한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여 고초를 겪는 삶이며 노동의 유일한 목적인 부의 획득에만 매진하는 삶이다. 당시 미국은 번영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병적이고 불안한 사회"(27-29)였던 것이다. 제임스와 토크빌이 지적한 19세기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은 21세기 현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하나의 방법으로 유럽 문화와의 통합을 주장한다. 그는 스트레더의 최종 선택, 즉 청빈한 삶을 선택한 결정을 통해 지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신을 고양하고 삶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인식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제임스는 물질이 없더라도 개개인이 삶의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스트레더의 최종 선택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에 역행하여 물질적 가치보다 지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택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James, Henry. *The Ambassadors*. Ed. S. P. Rosenbaum. New York: Norton, 1964.

2. 논문

Garcia, Claire Oberon. "The Shopper and the Shopper's Friend: Lambert

Strether and Maria Gostrey's Consumer Consciousness." *Henry James Review* 16 (1995): 153–71.

Peiffer, Siobhan. "Commerce and Freedom in *The Ambassadors*." *The Henry James Review* 23–2, 2002, pp. 95–104.

Rowe, John Carlos, "Henry James and the Art of Teaching." *The Henry James Review* 17–3 (1996): 213–24.

Sharma, Jagdish N. "The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 Theme in the Fiction of Henry James." Diss. Indiana U, 1975.

Warren, Ausen. "The New England Conscience, Henry James, and Ambassador Strether." *The Minnesota Review* 2 (1962): 149–61.

3. 단행본

이현수. 『정신 신경증』. 서울: 민음사, 1992.

Berman, Morris. *Why America Failed*. Hoboken: John Wiley & Sons, 2011.

Blair, Sara. *Henry James and the Writing of Race and Na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96.

Cargill, Oscar. *The Novels of Henry James*. New York: Macmillan, 1961.

Curti, Merle. *American Philanthropy Abroad: A History*. New York: Rutgers UP, 1963.

Edel, Leon. "*The Ambassadors*." *Landmarks of American Writing*. Ed. Hennig Cohen. Washington D. C.: Voice of American Forum Lectures, 1970. 205–16.

_____. *The Life of Henry James*. Vol. 2. 5 Vols. Harmondsworth: Penguin, 1985.

Ellmann, Maud. "The Intimate Difference: Power and Representation in *The Ambassadors*." *The Ambassadors*. Ed. S. P. Rosenbaum. New York: Norton, 1994. 501–14.

Fromm, Erich.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1976.

Geismar, Maxwell. "The Achieved Life à la Henry Jame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The Ambassadors. Ed. Albert E. Stone J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96–105.

Hall, Calvin S.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4.

Harvey, David. *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 New

York: Oxford UP, 2014.
James, Henry. *American Scene*. New York: Scribner, 1946.
_____. *The Art of the Novel*. Ed. R. P. Blackmur. Boston: Northeastern UP, 1984.
Kotler, Philip. *Confronting Capitalism: Real Solutions for a Troubled Economic System*. New York: AMACOM, 2015.
Lears, T. J. Jackson. *No place of Grace*. Chicago: U of Chicago P, 1994.
Matthiessen, F. O. "*The Ambassadors.*" *The Ambassadors*. Ed. S. P. Rosenbaum. New York: Norton, 1964. 427–38.
Miller, Perry. *Errand into the Wilderness*. Cambridge: Harvard UP, 1956.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 Arthur Goldhammer.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 of Harvard UP, 2014.
Potter, David. *People of Plenty: Economic Abundance and the American Character*. Chicago: U of Chicago P, 1954.
Powers, Lyall. *Henry James: An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Schumacher, E. F. *Small is Beautiful*. Points Roberts: Hartley & Marks, 1999.
Tanner, Tony. "The Watch from the Balcony: *The Ambassadors*." *Modern Critical Views: Henry Jame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7. 105–23.
Tocquevill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Vol. 2. Ed. Phillips Bradley. New York: Vintage, 1960.
Wegelin, Christof. "The Lesson of Social Beauty." *The Ambassadors*. Ed. S. P. Rosenbaum. New York: Norton, 1964. 442–58.
Weinstein, Philip M. *Henry Jam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Imagination*. Cambridge: Harvard UP, 1971.

(투고일: 2019. 5. 14 심사완료일: 2019. 6. 20 게재확정일: 2019. 6. 20)

이원주
소속: 영남대학교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자우편: princezkitty@nate.com

[Abstract]

The Various Aspects of Capitalism and Strether's Final Decision in *The Ambassadors*

Lee, Won-ju

Henry James is a novelist whose works were written at a time when industrial capitalism was evolving into monopoly capitalism. Through *The Ambassadors,* he projects various aspects of American capitalistic society onto the American way of thinking and value system. He criticizes Americans who pursue materialistic values and show indifference to cultivating culture and knowledge under capitalism. Furthermore, he maintains a critical view of the Americans' perceptions of adherence to being exclusive of European culture. For instance, most Americans visiting Europe demonstrate aspects of moral bankruptcy, selfishness and superficial human relations that seek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groups. James insists to integrate American culture with European culture, which emphasizes art, culture, and the importance of mind, as a way to complement and correct these capitalistic problems. In other words, he urges us to recognize the value of mind and intellect and look at the broader spectrum of the value of life through Strether's final decision of choosing a poor but honest life.

Key words: James, Capitalism, Materialistic value, Value of mind and intellect, Poor but honest life